

눈과 귀 즐거운 2017년 끝자락

시립예술단체 연말 공연 풍성

13~15일 광주시립발레단
클래식 발레 ‘호두까기 인형’

19일 광주시향
소프라노 강혜정 협연

20일 광주시립합창단
53곡 하모니 ‘헨델 메시아’

연말을 맞아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다
양한 공연을 준비했다.

먼저 광주시립발레단은 매년 겨울,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공연인 ‘호
두까기 인형’을 준비했다. 13일 오후 7시
30분, 14일 오후 7시30분, 15일 오후 2시,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발레단 제121회 정기공연인 ‘호
두까기 인형’은 최태지 예술감독 취임 후
첫 정기공연 작품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시립발레단이 지난 1997년부터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 공연해온 ‘호두까기 인
형’은 지금까지 5만여명의 관객을 기록
해왔다.

‘호두까기 인형’은 발레계의 전설 ‘마리
우스 프티빠’와 ‘바실리 바이노넨’의 안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어루러진 클래
식 발레의 대표작이다. 1882년 러시아 상
태페테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120여 년 동안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
왔다.

‘호두까기인형’은 주인공 클라라가 크
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호두까기 인형과 함
께 인형나라에서 펼쳐지는 마법같은 여행
을 그려낸다. 주인공인 클라라 역에는 신
송현, 전진미가, 왕자 역에는 보그단과 송
관석이 출연한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광주시립발레단 공연 모습.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이원준

062-613-8234,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제330회 정기연주
회 ‘2017 송년음악회’는 19일 오후 7시 30
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홍재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
번 공연의 첫 무대는 프랑스 작곡가 샤브
리에 ‘스페인 광시곡’이 장식하며 그 뒤를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이 이어간다.

이어 ‘그리온 금강산’과 레하르의 ‘오페
라 주디타’ 중 ‘내 입술, 그 입맞춤은 뜨겁

고’를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감상하
다. 소프라노 강혜정은 뉴욕 메네스 음대
에서 석사 과정과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
했고 2005년 뉴욕 마이클 시스가 오페라
어워드 수상 및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
상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음으로 김효근의 ‘눈’과 레하르의 ‘오
페라 미소의 나라’ 중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테너 하석배의 노래로 채운다. 테너
하석배는 2000년 유럽 연합방송 주최 세
계 20인의 음악가에 선정되는 등 능력을
인정받은 최정상 테너이다. 마지막 무대는
파야의 ‘삼각모자 모음곡’이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마지막으로 광주시립합창단 제171회 정
기연주회 ‘헨델 메시아’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아름다
운 서창’, ‘웅장한 합창’과 ‘폭넓은 아리아’

등 오라토리오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을
정립한 작품이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멘델
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인류 음악사에
큰 유산으로 손꼽히는 명작이다.

1부에서는 ‘서곡 신포니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주
의 영광’ 등이, 2부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는 멸시를 당하셨네’, ‘진실
로 주는 우리 괴로움을 맡으셨네’ 등이, 3
부에서는 ‘내 주는 살아계시고’, ‘사람으
로 인하여 죽으셨으니’등 53개곡이 마련
됐다.

이 날 공연에는 지휘자 임환규, 소프라
노 박미자, 메조소프라노 김지선, 테너 이
원준, 바리톤 염경목 등이 등장하며 오세
크트라 카메라타 안티파 서울이 출연한
다. 전석 1만원(학생50% 할인) 문의 062-
415-5203.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객석에 젼배 배치...오늘 아프리카 타악 공연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2017문화예
술평단프로젝트 ‘만(萬)만(萬)계’ 모금을
토대로 아프리카 타악그룹의 공연이 12일
(오후 2시,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
층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대표 양인
선)가 진행하는 ‘Anya Fo’ 콘서트는 전
좌석에 600대의 젼배를 두고 관람객과 연
주자가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관객 참
여형 공연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서아프리카 전통리듬
과 춤, 극으로 각 레퍼토리마다 말린게 부

족 등의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담겨 있다. 단체명이자 공연명
인 ‘Anya FO’는 말린게 부족의 언어로
“다 함께 연주하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함께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
카의 사상적 뿌리인 ‘Ubuntu (우분투)’를
테마로 했다.

오후 2시 공연은 조기마감했으며 오후 7
시30분 공연은 구매 가능하다. R석 2만
5000원, A석 2만원. 문의 062-670-795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

자연을 닮은 서정...이창민 두 번째 시집

‘새벽이...’ 16일 출판회

무안 출신 이창민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새벽이 햇귀를 데리고 왔다’(탈
샘·사진)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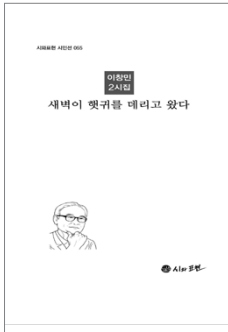
지난해 첫 시집 ‘시를 읊조리는 나
그네’를 펴낸 이후 2년여 만에 발간한
작품집에는 일상에서 느끼는 잔잔한
감동과 아름다운 자연을 소재로 한 작
품들이 담겨 있다.

이창민 시인의 시는 짧지만 특유의
유클릭을 갖췄다는 특징이 있다. 오래도
록 시어를 갖고 다듬었다는 사실을 방
증하는데 어린 시절 한학자였던 부친
의 영향으로 시문을 공부했던 영향이
고스란히 투영된 듯하다.

시집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명명돼 있어 계절
의 변화와 함께 화자의 심상을 고스란
히 느낄 수 있다. 시인은 단순히 풍경
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의 진실
과 깊이까지 정감한 언어로 그려낸다.

“고즈넉한 산사 처마 끝에/ 소리가
걸려 있다// 지나가는 산새가 쪼아 보
고/ 흘러가는 바람이 스치어 가도/ 땀
그랑 땀그랑// 세찬 비바람 내몰아도
/ 세상사 우레 쳐도/ 영화의 미소만
흔들린다...”

시 ‘풍경’(風景)은 한 편의 그림 같
은 작품이다.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뿐 아니라
철학적 의
미가 배어
있어 읽는
이에게 감
동을 준다.
또한 ‘집중
새 우는 곳
에 있었구
나’, ‘외달

도’ 등 다수의 작품도 특유의 유클릭을
준다.

시인은 “습작을 하면서 고(故) 문병관
시인의 지도를 받았는데 선생의 시에는
심금을 울리는 독특한 서정이 있다”며
“미흡하지만 나 또한 선생님의 시가 지
닌 유클릭을 닮고 싶었다”고 밝혔다.

해설을 쓴 허형만 시인은 “이창민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을 관통하는 작품
세계는 한마디로 시작 아름다움과 진
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신의 깊이
에 있다”며 “그 내용은 아름다움과 진
실”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창민 시인은 ‘문학예술’과
전남매일 신춘문예로 문단에 나왔으
며 현재 서은문화회 회원및 편집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발간을 기
념하는 출판회가 16일 오후 3시 30분
광주 동구청 지하실에서 열린다. 010-
3601-1580. /박성천기자 skypark@

박상의 한시, 오늘날 광주정신과 닮았네

박명희 박사 ‘박상의 생각, 한시로 읽다’ 출간

요즘 의

한 글 세

에게 한자

로 이루어

진 한시는

정말 화석

화 한 것일

까? ‘박상

의 생각, 한

시로 읽다’

〈사진〉을

출간한 박명희 박사(전남대

국어국문학과)는 “그렇지 않다”고 말

한다. 한시는 문자의 특성 때문에 현

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

나 시 속에 담긴 정신만은 현대에도

면면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란다.

박 상(1474~1530)은 현 광주시 서

구 서창동 절골마을에서 태어난 조선

전기 호남문인이다. 불의에 과감히 맞

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 현재의 ‘광

주정신’과 가장 맞닿아 있는 문인이다.

박상은 생전에 1200여 수의 한시 작

품을 남겼다. 이들 작품에는 박상의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박명

희 박사는 이들 중에서 100제 142수를



선별해 ‘박상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편역했다. 편집해 번역한 뜻이라는 편
역은 독자로 하여금 쉽게 읽을 수 있
도록 책을 엮었다는 것이다.

책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졌
다. 가족에 대한 추억과 사랑, 인사들
과의 교류와 소통, 물상의 관찰과 표
현이 주를 이룬다. 또한 시사에 대한
관심과 개탄, 학문에 대한 소신과 신
념 등으로 나누어 있다. 그리고 각 작
품마다 이해를 돕기 위한 평설과 한자
어에 대한 풀이와 유래 등도 정리해
일반인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박명희 박사는 “박상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따뜻하고, 안목이 있으며, 소
신이 뚜렷하고, 필력이 뛰어난지를 새
삼 깨닫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연
구와 함께 호남한시, 한국한시의 대중
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명희 박사는 전남대에서 박
사학위를 받은 이후 줄곧 호남한시 연
구에 매진해왔다. 지금까지 ‘호남한시
의 공간과 형상’, ‘호남한시의 전통과
정체성’ 등의 책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항)

■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

■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 ①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 ②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찰까지 원스톱 진행

※공동 사무실 쓰실분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

010-6670-9800

010-7384-7800